

월간 **쑹 현**

The Monthly Chung Hyeon

'81 **7·8** 월호



계절학교 시즌에

무더운 여름철이다.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교육위원회산하 16부 주일학교가 여름성경학교 내지는 수양회를 개최하여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연장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모두들 더위 때문에 산과 바다로 피서 나가는 기간에 교회 주일학교는 더위를 이겨내며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배우고 믿음성장에 따른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행사에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6백여명과 5천명 이상의 주일학생들이 참가하게 되고 계절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만 해도 무려 1천만원 이상이 필요케 되는 mamost 교육사업이다.

맘홀리는 교사의 수고는 말할 것 없거니와 교육을 집행하는 지도 교역자들의 세밀한 교과과정에 준한 성경강해 말씀선포가 기대되기도 한다.

계절학교는 주일학교 교육의 연장교육으로서 평상시 부족했던 교과수목 보충은 물론, 집중적인 성경공부로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주교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짧은 기간을 최대한 활용, 교회가 필요로 하는 천국일군 양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계절학교는 다음 몇가지 측면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운영의 합리화로 초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겠다.

첫째로, 성경말씀 교육이어야 한다.

말씀의 생활화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구속사역의 오묘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대속의 이치를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교수하므로 바른 신앙생활로 유도하는 말씀교육이 필요하다.

요즈음처럼 세속화시대의 황량한 풍토에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단사조의 팽배, 새로운 신학의 범람으로 인한 와중에서 말씀대로 살기란 무척 힘든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성경말씀을 체계적으로 교수하여 구원의 확신은 물론 믿음생활에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진리에 입각한 교회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영위되도록 훈련시켜야 하겠다.

성경말씀을 도외시킨 여름학교는 있을 필요도 없고, 있다손 치더라도 죽은 교육에 불과하다.

자라나는 믿음, 확신에 거하는 믿음, 생활에 적용하는 믿음, 개혁주의 성경관에 입각한 말씀교육의 산 도장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전도확산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여름학교(계절학교)는 현재의 재적되어 있는 주일학생들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복음이 널리 퍼져서 그들도 신앙행렬에 참여하는 전도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님의 교훈처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씀을 따라 이웃 불신자를 특별히 초청하여 구원의 도리를 일깨워 주며 교회생활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둘같은 마음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겠느냐? 고 회의를하기 전에 사랑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그들을 따뜻히 맞이하여 순차적인 신앙훈련을 시켜 중생의 환희, 체험적 신앙애로의 기술적 교육을 시도, 전도확산의 활로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다.

계절학교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1866년 미국 보스턴 제일교회에서의 여름방학을 이용한 성경교육이 효시인데, 오늘날 전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가 기독교 교육의 일환인 보충교육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계절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간절한 기도와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고 면밀한 계획 구성, 교재의 완벽, 인적자원확보, 이에 소요되는 재정집출 등의 운영상 기획을 충실하게 준비하므로 효과적인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예배, 교육, 생활운영의 기본 마스터 플랜을 세워 빈틈없고 공백이 없는 커리큘럼을 작성하여 황금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의 일이지만 계절학교는 울동이나 공작, 그리고 캠프화이어, 결단의 시간에 자기 죄를 중이에 적어 불에 태우는 샤마니즘적인 행위로 은혜가 되었다는 지도자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있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정말 이번 계절학교는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천국일군 양성에 초점을 두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며, 전하며, 배우는 교회’의 중추적 인물이 되도록 특별히 교육해야 하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9권 제7호
통권 90호

— 7. 8월호 차례 —

권 두 언 계절학교 시즌에	손경수 · 2
이달의말씀 성도의 찬양	김창인 · 4

월간 충현

□ 특집 / 1981년도 여름행사 □

●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김종석 · 6
● 각부의 여름행사 목표와 운영	편집실 · 9
● 수양회 장소 - 충현기도원	편집실 · 12

만 난 사 람	황기성·오승률 장로	이형수 · 14
편집실칼럼	교회의 편심	오택용 · 16
찬송가감상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김하진 · 16
책 소 개	진화나 창조나	김익경 · 17
책 정 보	6월중 들어온 도서	도서실 · 17
여 행 보 고	보다 나은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최 환 · 18
칼 빈 주 의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김하진 · 22
권 찰 수 첩	권찰이 갖추어야 할 일(4)	김원남 · 25
선 교 소 식	해외선교사·선교지 소식	해외복음선교회 · 26
새 교 우	6월중 새교우·결혼·별세자 명단	편집실 · 28
교 계 소 식	교계 뉴우스	편집실 · 29
교 회 소 식		편집실 · 30
편 집 후 기		편집실 · 34
교 회 행 사		편집실 · 34
화 보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편집실 · 35
표지설명	한창 무더운 중에도 그 열기를 아랑곳없이 그리스도와 서로 를 향한 우리의 가슴은 뜨겁다.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 람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성도의 찬송

〈엡 1 : 1 - 14〉

김 창 인 목사

(본 교회 당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의 찬송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1. 성도가 꼭 해야 할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위에 사는 동안에 일상생활 가운데 꼭 해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입니다.

이 생활이 성도의 가장 요긴한 생활입니다.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만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건전하게 장성하고 꽃피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2)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제체롭게 일을 처리하게 되고 담대하게 일을 진행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는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3) 전도하는 일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일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확장운동입니다.

4) 찬송하는 일입니다.

2. 누구를 찬송해야 합니까

땅에서는 자라에 새라를 찬양해야 하는 일이 없습니다. 소련에서는 스탈린을, 중공에서는 모택동을, 휴전선 너머에서는 모든 노래의 7할 이상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라에 새라를 찬양하는 것은 악행이며 가증한 죄책입니다. 이것은 제한이 있지 못하고 잠시 지나면 반역의 소리가 퍼져 있습니다.

또, 사람의 찬송을 당연히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반역죄를 범하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찬양합니다. 나무로, 돌로, 금으로 발라 놓은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우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줄 모르는 교만으로 악독해집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람이나 우상을 찬양하는 일이 전혀 없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찬송해야 하겠습니까?

1)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놀라우신 음씨, 그 부요함, 우주를 심판하시는 권세, 높고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둘째,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주만물을 지으셔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고 죄를 벌해 제옥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찬송합니다.

인간은 권세와 재물의 번부애 사람을 차별대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선을 심은 자에게는 상급을, 악을 심은 자에게는 저옥의 불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찬송해야 합니다.

2) 성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거센 바람과 달뻗는 풍랑을 잔잔하게 다스리시는 만유의 대왕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오늘도 대옥의 기도를 계속하시며 천국의 영광복락을 예비해 주신 예수님의 은총을 찬송해야 합니다.

3)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된 우리를 세상에 가는



끝날까지 거느려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으신 것을 계속해 주시면서 죽음 정거장까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3. 어떻게 찬송해야 합니까

1) 입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입이 만 개가 있다 해도 전부 동원시켜 찬송하겠다는 것은 나의 있는 전체로 찬송하겠다는 말입니다.

2) 마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곱게 찬송해도 마음이 없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시니 감사하며 이제는 바로 살기로 결심하는 마음 중심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3) 영혼이 찬송해야 합니다.

4) 바치면서 찬송해야 합니다.

내 생명과 재물과 뜨거움을 바치며 찬송하여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며 악마가 듣고 도망가는 계신가가 되며 성도가 같이 은혜 받고 내 마음에는 평화가 오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4. 올바른 찬송을 부른 사람은 어떠합니까

1) 승리자가 됩니다.

찬송을 하는 동안에는 내 마음의 욕심, 김과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찬송은 하게 되면 내 자진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악마를 이기 승리하게 됩니다.

2) 평안이 옵니다.

3)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 놓아 주십니다.

찬송으로 인하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웃과 우리 사회에 평화를 심는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존경하게 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4)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은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지혜의 눈이 떠집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바람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꽃한 종이에서 진리를 발견하며 모든 일에 지혜로와 저서 성공자가 됩니다.

5)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항상 찬송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들 딸들은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그들의 뼈가 되고 인격의 살이 되어 집니다. 그리하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창성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6) 세상에서 천국을 살다가 세상 이별하면 영생하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성경공부와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기도도 쉬지 않고 해야 하지만 모두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세상에서 천국에까지 영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어 천국 생환 하다가 내 영혼 천국 가는 날 천군천사와 함께 찬송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청아한 음악 속에 저와 여러분은 다 설가대원이 됩니다. 그날은 늘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은 땅위에서 신자의 본분을 지키는 생환을 하여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삼천리 금수강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교회·교사·학생·가정의

상호 협력이 필요=



김 종 석 장로

(교육위원회 총무국장)

해마다 여름 방학이 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수양회(성경학교)이다. 금년에도 벌써 우리는 이 문턱에 서 있다. 왜 수양회(성경학교)를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그 목적이 뚜렷하고 잘 알려진 것이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취급해 온 것 같다. 수양회의 목적은 연 52주에 걸친 교회 교육의 부족을 보충하는 집중적인 교육이라 본다.

교육의 효과는 훗날에도 나타날 수 있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효과는 그것의 현재적 실효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교육의 중요성은 상식으로 여겨지지만 일 반화되었고 배움의 열심은 상식의 선을 넘어서서 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현 세대에서 우리의 기독교 교육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적을 인격의 심화라고 한다면 기독교 교육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 인격자를 기르기 위하여서일 것이다. 일반 교육은 하루의 생활 가운데 최소한 사분의 일 이상을 차지하는데 비하여 기독교 교육은 하루가 아닌 1주일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로서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모자라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형편 속에서 이번에 주어 진 수양회는 우리에게 황금의 기회라고 할 수 있으리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달란트의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라 본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성실히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만족하게 해 드릴 수 있겠는가? 이 좋은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본다. 이 귀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할 일을 확실히 알고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1. 기획부인 부장단 (약 3:1)

계절풍처럼 다가오는 연중 행사라는 관념은 다 벗어 버리고 이번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기획부에서는 교육 과정의 목적에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한다. 행사를 위한 행사나 답습이 아닌 독창적인 창의력을 심분 발휘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계획 수립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될 줄 안다.

과거의 행사가 내용이나 전달되는 과정, 효과와 도입 과정에 차질 여부를 분명히 가려서 모든 행사 하나 하나가 목적을 향한 수단이 되어야 겠고, 결과를 향한 분명한 진행이 되어서 흥미, 혹은 화목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말씀의 생활화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다. 수양회(하기학교)의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구매의연한 자세보다 시대 감각에 맞는 그릇에 어떻게 말씀을 담아서 운반하며 그 말씀을 먹여 영혼들을 유쾌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일정표의 부분 하나 하나에 필요여부와 효과를 면밀히 생각하면서 무책임한 준비로 시간, 재정,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욕심만이 성공의 열쇠라는 과욕을 버리고 모든 일은 기도중에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 설정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긴한 과정만을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하겠으며 진행상에도 누가 총지휘의 책임을 맡아 일관성있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해야 시간과 체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숙려해야 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적은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여 지극히 적은 것 하나에까지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늘 기도하는 자세로서 충분한 기도

의 시간을 가지고 즉흥적인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엄금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는 후에 모든 행사를 진행해야 하겠다.

일정표의 부분 하나하나에 필요여부와 효과를 면밀히 생각하면서 무책임한 준비로 시간, 재정,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욕심만이 성공의 열쇠라는 과욕을 버리고 모든 일은 기도중에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 설정된 목적달성을 위하여 요긴한 과정만을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하겠으며 진행상에 있어서도 누가 총지휘의 책임을 맡아 일관성 있게 이끌어 갈 인지를 숙려해야 하겠다.

항상 시간에 쫓기던 주일교육에서는 충분히 이행치 못하던 신앙인격의 구체화와 상담 등을 통한 근접교육을 철저히 하므로 보충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각 학년별 또는 그룹별에 따른 주제교육을 통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하므로써 주교 교육을 보완하여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 교사에게 (딤후 2:11)

먼저 자신을 한번 점검함이 가장 필요한 줄로 안다. 매주일 시간에 쫓기는 교사상보다 침착하고 여유있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생활하는 교사상 정립이 중요하다. 또한 말씀과 생활과의 연결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실천에 옮기게 하느냐 하는 것도 빼어 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교사 자신이 주어진 교육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금번 수양회의 목적을 확실히 인식하고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잘 때까지 기도의 자세와 성경보는 태도, 예배드리는 모습 등 말과 행동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함으로 본을 보이심과 같이 우리 교사들도 하여야겠다. 수양회 기간이 모뎀 교육의 고된 기간이 되겠으나 학생들에게 더 할 수 없이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생활 교육이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참 신앙의 자세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헌신의 제물이 되겠다는 믿음으로 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행사가 끝날 때는 학생들의 외적인 모습 뿐 아니라 더우기 내적인 믿음의 변화가 있다는

소식을 들음으로써 교사의 피로 회복제가 되게 하려면 한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 품에 더 깊숙히 안기고 성숙될 수 있는 기회임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앞에 쉬임없이 기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기독교 교육의 효과가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균형있는 교육의 산 표본이 되어야겠다.

3. 참석하는 학생의 자세 (약 1:32)

초등부 이하의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별활동에만 관심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도 없이 단순한 기대 속에서 참여하는 일들이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에게는 주위에서 교사나 학부모 및 가정의 협조와 예비 교육이 큰 효과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위에서 지난날의 허황한 흥미 위주의 성경학교보다 말씀 전달과 생활의 적용에 예비적인 인식을 새롭게 해줄이 필요할 줄 안다. 중등부 이상은 어린이와는 달리 지난날 수양회를 통한 은혜로왔던 일들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생활을 되새기면서 뚜렷한 목적을 세우고 참여함이 옳은 줄 안다. 자신만으로는 힘든 생활의 습관이나 자세 등을 이번 기회에 타의나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라도 생활의 변화를 가져와야겠다는 마음 가짐이 우선 필요하다. 많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신앙 생활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또 말씀 가운데서 참다운 삶을 발견하여 나의 생활로 소화시키는

지난달 수양회를 통한 은혜로왔던 일들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생활을 되새기면서 뚜렷한 목적을 세우고 참여함이 옳은 줄 안다. 자신만으로는 힘든 생활의 습관이나 자세 등을 이번 기회에 타의나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라도 생활의 변화를 가져와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우선 필요하다. 많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또 말씀 가운데서 참다운 삶을 발견하여 나의 생활로 소화시키는데 관심을 둬야 옳은 줄로 안다.

데 관심을 둬야 옳은 줄로 안다. 말씀 중심이란 어떻게 보면 흥미롭지 못하고 읽고 깨닫기도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달고 오묘한 진리, 영원히 켜

기워지지 않는 기쁨과 참 평안과 소망과 위로가 그곳에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임을 다시 생각하여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바로 배우고 깨닫는 은혜를 받도록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발견해 보겠다는 의욕으로 참여하는 것이 옳을 줄 안다.

중학생 이상에게 더 많은 격려의 말씀과 출발의 준비에 세심한 관심으로 도와주고 수양회 기간에 기도와 말씀 사모에도 최종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온 가정이 수양회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협력의 뜻도 보여야겠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겠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영혼이 현 상태와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면 그것을 믿음의 자세에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4. 가정과 부모에게 (눅 23:28)

방학기간 동안 일시나마 교회에 학생들을 내맡기는 안일한 자세보다는 좀 더 긴장되고 관심있는 기회로서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기대하고 온 가족이 기도하며 학생 중심의 가정생활과 수양회 또는 하기학교와 호흡을 같이 하여 교육의 효과를 거둬야 될 줄로 안다. 더우기 어린이들에게도 한 날의 생활을 주의 깊게 묻기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생활의 새로운 면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배우는 말씀과 연관을 시키면서 예배도 드리며 찬송도

불러 생활에서 흔적을 보이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더 해주는 노력이라 보아진다. 또한 중학생 이상에게는 더 많은 격려의 말씀과 출발의 준비에 세심한 관심으로 도와 주고 수양회 기간에 기도와 말씀 사모에도 최종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온 가정이 수양회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협력의 뜻도 보여야겠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겠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영혼의 상태와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자세에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현실의 가정들은 외형적인 인격, 출세에 관심이 지나친 나머지 그 영혼의 문제, 즉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부모도 그 옆에 갈 수 없는데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심판을 받을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울어야겠는가?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의 성장에 관심이 없는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자체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내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주 안에서 잘되는 것(요 1서 3장 4절) 외에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 보아진다. 철부지로만 여겼던 어린 생명들이 성령의 감화로 통회하며 자복하는 눈물의 모습은 보는 자로 하여금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솟아나게 하고 주님앞에 서는 날까지 말씀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수양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가운데 나의 자녀만이 아무 느낌없이 부딪침도 없이 그저 많은 사람들 속에 밀려갔다 밀려오는 무의미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진실하고 많은 배후의 기도가 필요하다. 주님과 동행하는 예복과 같이, “나와 내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각종 기념타올 특수주문전문

송월타올 서울영업부

대표 최 대 원 집사
(종로 5 가 동대문극장 정문 옆)

☎ 266-7715, 269-7715 <경북상사>
☎ 269-0026 <보자기공장>

각부 수양회의 목표 및 운영

□ 어린이새신자부

• 목표

기독교의 기본진리를 가르치며 예수님을 영접하여 평생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는데 금번 여름성경학교의 목표로 한다.

• 운영계획

모든 말씀과 행사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강사를 초빙하여 새로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에게 알맞는 성경이야기를 들려주고 분반공부시간을 밀도있게 하며 반별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가져 반별 친교, 찬양의 시간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한다.

□ 영아부

• 목표

집중적으로 아기들과 학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랑됨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하며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한 어린 생명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을 다지는 변화의 기회로 하는 것과 그동안 잘 안나오던 사람을 한데 모아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기회로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 운영계획

잡다한 많은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편성하며 특히 많은 잔 일들을 지도 교역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아기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출신하는 일을 통해 서로를 배우는 기회로 삼는다.

□ 유치부

• 목표

하나님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겸손한 어린이로 지도 양육함에 있어 무엇이 순종이며 남을 위하는 일이 무엇임을 말씀과 생활을 통해 깨달도록 한다.

• 운영계획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분반공부를 통해 순종의 실례를 가르치고 신앙

인물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의 본을 보이며 종래후 교회버스를 이용하여 새성전 건축 현장을 견학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가르친다.

□ 유년부

• 목표

평소 시간 및 장소관계로 껄 짜여진 일정 속에서 운영되던 주일학교는 시간과 장소의 여유를 가지고 기계적인 일정표를 떠나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사와 어린이가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 되고 거리감 없이 어울리는 생활 가운데 알지 못하는 중에 신앙의 성장을 가져 오도록 하고자 "행함이 있는 믿음생활을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운영계획

어린이들이 도시락을 지참토록 하여 점심시간에 담임선생님과 함께 식사하도록 하고 또한 기존의 학급을 그대로 편성, 성경학교가 끝나도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시간 중 특강시간은 주제와 성경공부 내용을 감안하여 한 주제, 한 목표로 집중토록 사전에 준비하고 특히 특활시간에는 성가대를 동원하여 노래극을 발표케 하여 지루하지 않도록 한다.

□ 초등부

• 목표

방학기간을 이용한 집중적인 신앙훈련으로 특히 기도를 생활화하는 어린이로 지도함을 목표로 한다.

• 운영계획

성경공부시간을 통해 기도를 생활화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등을 가르치고 특히 기도응답에 관한 간증을 본 교회 권사님께 부탁하여 들려준다.

특강시간에는 진화론에 관한 특강으로 「아담이나? 원숭이나?」를, 또한 교사들이 성극을 공연한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성경퀴즈를 실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고 연장수업과 점심시간, 학생 신앙상담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의 폭을

넓히며 그들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반별 찬송가 경연대회, 성경 퀴즈대회, 글짓기, 그리기 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발표력을 기르도록 한다.

□ 중등부

• 목표

총 주제를 「사랑」으로 정하고 요일 3:18(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표어 아래 기독교 학생의 생활 훈련에 주력함을 그 목표로 한다.

• 운영계획

교사와 학생간의 긴밀한 교제를 위해 짧은 기간이 나마 인격적인 밀착을 갖도록 분반공부 뿐만 아니라 칠판도 함께 한다.

새벽기도시간에는 위인들의 기도생활을 강론하며 낮 주제 강의시간에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의 오묘한 관계를, 분반공부 시간에는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어떻게 심어 갈 것인가를 다룬다.

특강은 한창 문제를 일으키는 통일교와 여호와의 증인을 비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특히 마지막날 아침에는 금번 수양회의 상징으로 형제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여 예수님의 모본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 고등부

• 목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로 알고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학원에서 능력있는 전도자로 세움을 입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운영계획

성막론과 성령론을 강의하여 바른 교회관과 성령에 대한 이해, 권능 등을 알게 하고 각 조 운영을 통해 선후배간의 관계를 바로 맺게 한다. 선교사들이 학생들을 개개인 상담, 그들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 대학부

• 목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인 Q. T. 와 기도와 교제의 생활을 회복시키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훈련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의 참맛을 알게 한다.

• 운영계획

그룹별 성경공부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강사 목사님과의 그룹토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바른 자세의 신앙관을 갖도록 한다.

전학생을 집회에 집중적으로 참석시키기 위해 교사들이 모든 봉사를 맡아서 한다.

□ 청년부

• 목표

금년 하기 수양회의 목표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히 6:1)로 정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는 여러번 들을 기회가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여 생활에 적용하는 훈련의 기회가 없었기에 이번 수양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활과 그 생활을 본받는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운영계획

강사 최해일목사님을 통해 기독교론강의를 듣고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 섬김, 교제, 순종, 충성, 용서, 말씀읽기, 경건의 생활등을 적용하는 훈련을 한다.

□ 장년부

• 목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교회에서의 바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 노년부

• 목표

노후의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 「훌륭한 신앙의 조상」이란 주제로 노년 학생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산업전도교육부

• 목표

교회에서 배우는 복음을 산업전선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화하며 나아가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와 직장관 전도인과의 관계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운영계획

말씀(강의, 설교, 성경공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로 알며 직장인으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며 자신의 직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 전체 학생들이 직장 전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요원화 한다.

□ 선교부

• 목표

선교의 특수 정예부대를 양성하며 선교사 내지 후원자로서의 사명감 고취 및 재인식을 갖는 기회로 삼으며 단체훈련을 통해 선교의 동지적식을 함양하며 특히 금년 훈련을 계기로 선교부의 지난 3년간의 연구실적 및 한국교회의 선교실적을 내년(82년) 2월까지 총정리(교재화, 자료화)하는 일을 시작하는 기회로 삼는다.

또한 그동안 참여했던 모든 선교지망자 내지 후원자들이 한 선교가족으로 모여지는 기회로도 한다.

• 운영계획

새벽기도 및 성경강해(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학생들의 영적성장을 돕고 지역 연구발표, 토론회, 저녁 에세이훈련, 증인훈련, 금식기도등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시간과 전도지 개발과 지역전도를 하며 모든 생활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며 남의 일을 돕는 일을 한다.

1981년도 여름행사 계획표 (개요)

기 관 명	횟수 및 행사명	주 제	주제성구	주제찬송	기 간	장 소	참 가 예 정 인 원				
							학생	교사	보조교사	외래사	내부강사
성가부	제 6 회 수양회				8.10-8.13	낙원수양관					
	제 5 회 수양회										
	제 3 회 수양회										
	제 6 회 수양회										
전도위원회	제10회 동이촌전도대과송	내가죽도록중생하라	제 2:10	544	7.27-7.31 8.17-8.21	자 지 역					
성경학원	제 7 회 동이촌교역자초청훈련	부흥케하옵소서	합 3:2	542	6.29-7.3	충현기도원	100			김진택 외 3인	
	제10회 동이촌선신도초청훈련	제명을지키게하옵소서	시 119:73	542	7.6-7.10	충현기도원	100			이성근 외 3인	
권사회	제 4 회하기수양회	여성의집으로주님을 섬기자	눅 8:3		8.17-8.19	충현기도원	300				이 성 근
여전도회	제 4 회하기수양회										
주일	어새부 제14회여름성경학교	예수님을바라보자	히 12:2	590	7.27-7.30	본 교 회	120	33			김정훈, 김연이, 김은숙
	영아부 제12회여름성경학교	사랑은요래참는다	고전 13:4	사랑은 사랑은	8.25-8.26	본 교 회	400	32			이 성 근
	유치부 제28회여름성경학교	순종하는 마음	행 6:1		8.10-8.13	본 교 회	350	60			김장근, 정연희
	유년부 제28회여름성경학교	자라나는 마음	행 4:15	397	7.27-7.30	본 교 회	430	70			안석렬, 김장근, 김은숙
	초등부 제28회여름성경학교	믿음과 성장	행 4:15	350	7.27-7.30	본 교 회	430	60			장정일, 이양우, 김익경
	중등부 제19회하기수양회	오직행함과 진실함으로하라	요일 3:16	299	8.3-8.6	충현기도원	300	48			최봉호, 김양태
	고등부 제19회하기수양회	오직성령의 충만함을받으라	행 1:8	210	8.10-8.13	충현기도원	200	24			조준상, 유희섭
	대학부 제12회하기수양회	동성찬 영광	행 4:13-16	321	7.20-7.23	충현기도원	120	14		문창수	최중옥, 성수진
	청년부 제11회하기수양회	예수물결이생각하라	히 3:1	449	7.15-7.18	충현기도원	200	8		최해일	이 승 근
	장년부 제 4 회하기수양회	성령의 은사	갈 5:22-23	201	8.7-8.8	충현기도원	250	40		김재술	
교	노년부 제 6 회하기수양회	충돌한선일의조상	빌 3:12-14	324	8.24-8.25	충현기도원	180	27			장정일, 한영철
	산교부 제 3 회하기수양회	위선자를 찾아	골 3:1	628	8.3-8.6	충현기도원	83	16		조성범	박 동 실
	선교부 제 3 회하기수양회	내가모든선한일에 예비함되리라	딤후 2:21	625	7.21-7.25	청산학원 수양관	70	7			김영희, 오지용, 유복남
제											

여름행사의 장소 — 충현기도원

격주로 부흥사경회 열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기도원

7. 8월은 우리 교회의 수양회



〈기도원 본당〉

여름철이 되어 수양회가 시작되면 장소문제가 너무 심각했다. 더구나 우리 교회같이 한번 움직이면 2,300명이 동원되어 이 인원이 효과적으로 수양회를 해 낼 장소가 각 부서 주최자로서는 제일 큰 걱정이었다.

매년 연초부터 서둘러도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여름 수양회에 큰 차질을 가져오곤 했다.

1. 기도원 설립의 경과

이처럼 주일학교에서 여름마다 수양회와 각 지회에서 기도모임이 늘어가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원 신축문제가 오가기 시작했다.

1973년 7월 29일 당회에서는 “교회안에서 수양관(기도원)을 건립하자는 여론이 점점 높아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론을 모아 본 결과 적당한 시기에 충현동산 경내에 수양관을 건립할 것을 가결”하였다. 이처럼 기도원 건립의 꿈이 온 교인들의 마음에 하나 하나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개인별로 기도원 건립을 위한 헌금이 하나 둘 모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3년 4월 13일 창립총회를 갖고 시작한 권사회는 발족과 함께 기도원 건립을 주요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던 중 교회는 1976년 3월 충현동산이 있는 대쌍령리 산상에 기도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토지 4,000평을 구입하여 기도원 건립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1976년 12월 6일에는 기도원 기공현장인 경기도 대쌍령리에서 백성룡 목사와 건축위원장 김기정 장로, 동산관리위원장 한명옥 장로를 비롯한 교인들과 지방유지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예배를 드렸다.

이에 1977년 1월 9일 기도원 건축허가를 받고 모든 계획을 끝낸 후 공사를 진행, 1977년 5월 26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나 자재파동, 임금인상, 월동 등의 어려움이 따라왔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원 기공식을 가진 후 1년 6개월만인 1978년 5월 30일 녹음이 우거지고 맑은 공기 가운데 아름답고 웅장한 기도원이 완공되어 6월 6일에 봉헌예배를 드렸다.

2. 시설규모

이처럼 임야 50,000평중 약 2,500평의 대지를 확보하여 총공사비 1억 9천만원과 연인원 7,780명을 투입하여 완성한 기도원은 시설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기도원이다.

● 예배당 233.59평(본당과 지하 약 1,000명 수용)



〈지도/한영철목사〉



〈총무/박창수장로〉

- 남자숙소 138.26평 (2층 약 250명 수용)
- 여자숙소 135.48평 (2층 약 250명 수용)
- 식당 201.81평 (2층 1회식사 400명)
- 목사관 51.67평 (2층)
- 공동화장실 17.04평 (수세식)
- 수위실 5.45평
- 총면적 783.30평
- 또한 각 숙소에는 소형 집회실을 4개 (약 60명수용) 마련하여 적은 단위로 오는 구룹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최근에는 기도원 진입로 포장공사를 마쳐 대형버스가 기도원 안에까지 들어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대운동장 밑에 조그만 운동장을 만들어 배구 등의 경기를 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그동안 애쓰던 용수관계도 해결, 금년엔 물 때문에 큰 걱정을 안해도 좋도록 했고 새로이 우물을 하나 파서 비상시 용수난에 대비했다.
- 개인기도를 위한 개인기도실을 마련하고 있다. 냇가로 가는 숲속에, 또한 식당 뒷편 숲속에 개인기도실을 마련하여 혼자서 기도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3. 격주로 부흥사경회

지난해부터 기도원에서는 기도원 자체로 격주로 부흥사경회를 열고 있다. 기도원지도인 한영철 목사가 강사로 수고하는 이 사경회는 새벽기도회, 아침, 저녁강해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격주로 열린다.

그러나 7.8월의 수양회 시즌에는 꽤 짜여진 수양회 계획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9월(7-11일, 21-25일)과 10월(5-9일, 19-23일)에 또 모이게 된다.

지난 6월말 농어촌교역자 초청훈련을 시작으로 8월말까지 농어촌평신도초청훈련, 청년부, 대학부, 중등부, 고등부, 권사회, 여전도회, 산전교육부, 장년부, 노년부 등이 계속해서 기도원을 이용하여 수양회가 열리게 되어 기도원에서는 1년중 가장 바쁜 때인 것이다.



〈숲속에 마련된 개인기도실〉

4. 교통편

교통은 마장동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것과 성남을 경유해서 갈 수가 있고 또한 교회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1) 원행승차시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천방면행승차(조월면사무소 앞에서 하차)후 도보로 약 15분.

2) 직행승차시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천방면행 승차, 광주군에서 하차→원행을 다시 타고(조월면사무소 앞에서 하차)후 도보로 15분, 또는 광주군에서 하차하여 택시를 타도 된다.

3) 성남 혹은 을지로 5가에서

66번, 570번, 239번을 타고(성남종합시장 앞에서 하차)하여 광주행 3번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방면행 원행버스를 승차하여(조월면사무소 앞에서(대쌍)하차)하여 도보로 15분.

4) 교회버스를 이용시

매주일 및 수요일 저녁예배를 마친 후 교회앞에서 출발

●매주일 → 오후 7시

●수요일 → 오후 9시

*연락처

〈주소〉 경기도 광주군 조월면 대쌍령리 산80번지

〈전화〉 경기도 광주 조월 14번

또는 서울·중구 충무로 5가 36. 충현교회 (267·9937, 9738)로 문의하면 된다.

황기성·오승률 장로 미국으로 이민

서로 화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

황기성 장로에게 공로패 수여해

□□□... 그동안 시무장로로 수고해 오시고 있는 황기성·오...□□□
□□□...승률 장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므로 우리 교회를 떠...□□□
□□□...나시게 되었다. 황기성 장로는 지난 6월 27일에, 오승...□□□
□□□...를 장로는 7월 3일에 각각 출국하셨다. 편집실에서 두...□□□
□□□...분 장로님을 만나 떠나시는 사정과 그동안 교회생활을...□□□
□□□...통해 느끼셨던 점 등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성도들...□□□
□□□...에게 소개한다.□□□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 것은 언제부터이며 또한 시무장로가 되신 것은 언제입니까

황/ 수복이후 동일교회 시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 제직으로 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1960년에 장로피택을 받았으니 지금까지 만 21년 2개월을 시무장로로 일한 셈이군요.

오/ 저는 1966년부터 충현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장로피택은 1972년으로 9년 정도 됐습니다.

두분 장로님 모두 교회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많은 수고를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교회에서는 주로 어느 방면의 일을 하셨는지요.

황/ 초대 학생회 부장, 제직회 서기, 당회서기, 또한 감사, 교육위원회위원 등으로 있었습니다.

오/ 주일학교의 고등부 부장을 하고 또한 교육위원회위원 등으로 있었지요.

장로님들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 계시면서 이전과 오늘의 우리 교회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오/ 우리 교회가 크게 발전한 것이 1960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주일학교를 위시해서 모두가 열심이었습니다. 그당시 참 좋았고 생각되는 일은 매주 월요일 저녁에 김창인 목사님이 성경강해를 했는데 무척 좋은 반응을 얻으며 계속되었지요.

그후 교회가 점점 커지고 특히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이전과 같은 그런 순수한 열심과 또한 그런 열심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과 만족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큰교회, 모두가 갖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황/ 예전과는 먼저 이 세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장로님 말씀대로 300-500명 정도의 교세라면 모든 면에서 가장 좋겠지

요. 그러나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300-500명 정도의 교인이 출석해도 2부예배를 봐야 하지않습니까 교인들의 생활도 복잡해지고 하여 새벽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오후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하잖습니까, 이렇게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도 참 힘들다마는 하여튼 교회에서 교인끼리 파차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사정을 알고 하는 일들은 잘 계속되어야 할 줄로 아는데 현재 우리의 형편은 제직과 제직이 모르는 정도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적은 규모의 교회에서 봉사 활동등을 할 때 한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지금 장로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규모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큰 교회이기에 해야 되는, 할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황/ 글썽요. 모든 면에서(교회행정, 교육등...)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핑계하지 않고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의 우리 교회의 큰 일은 성전 건축하는 일인데 황장로님께서는 현재의 성전건축시 5년동안이나 성전건축 회계일을 담당하시어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아실텐데 그



〈황기성 장로〉

당시 건축과 오늘과의 건축에, 교인들이 임하는 자세나 기타 여러가지 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 그 당시와 지금과는 여러모로 함께 놓고 비교할 수가 없지요. 우선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또한 상황에 있어서도 매우 다릅니다.

그때는 천막을 치고 일주일 예배 보면 일주일만 지나면 천막이 모자라 다시 늘여야 되고 하는 편이었지요. 그래서 시작한 성전건축이었기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꼭 차 있었었습니다. 그런데다 한쪽에서는 건축을 하고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니 더욱 실감이 났지요. 그때는 참 재미 있었읍니다. 매주일 오면 건축현행 사항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손으로 만져 보고 가기도 했읍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건축현장을 볼 수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건축은 이미 10여년전에 계획하고 그때부터 건축현금을 바치고 하는 가운데 오랜시간에 걸쳐 해오게 되니까 자연 관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되어졌으니까 앞으로 계속 힘을 합쳐야 되리라고 봅니다. 보다 발전을 위해서 이 새성전은 하루속히 완공되어야 하지요. 현재 우리 교회가 4부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기타 교회활동이 완전 중

지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시면 어느 곳으로 가시게 되지요?

황/ 예, 〈저는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거기서 교회는 푸레몬한인교회(김복출목사사무, 전 창신교회사무)를 맡들게 되지요. 지난해에 가서 몇달동안 다녔지요. 미국에 가서 보니 좋은 교회를 선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침 잘 아는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에 나가게 되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까지도 열심히 힘 달는 때까지 일하려고 합니다.

오/ 뉴욕저어지로 갑니다. 그곳에 2년 가량된 한인교회가 있어서 그곳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황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좋은 교회를 선정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총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온 것이 새삼스러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신앙보다는 사교가 중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곳 사회형편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나 교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지요

오/ 교회를 위해 서로가 이해하며 양보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승탈 장로〉

니다. 조금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도 전체를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바라고 싶습니다.

황/ 잘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화목을 깨지 않도록 피차간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교회의 교회 회계제도를 개선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전체 회계관계를 전문적으로 잘 아는 시무장로님 중에서 상임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회의 자산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연말에는 자산을 포함한 대차대조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위원회가 생겼읍니다마는 조직이 생기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결국 협조하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에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빠른 시일안에 고쳐졌으면 모두를 위해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무장로님으로 20년 이상이나, 또한 오랫동안 일하시다 떠나게 되니 한편 마음은 무거우실 줄로 압니다. 서로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담·정리 이 형 수 집사

(월간총현면집무장)

교회의 관심

오 태 용

미의회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1세기는 태평양시대가 되어 세계의 문명권이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갈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세기의 문명권은 한국, 일본을 주축으로 한 동북아시아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곳에 무슨 자원이 있길래 그렇게 과학적 예언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토인비의 말대로 물적 자원이 아니라 인적 자원 때문이다. 양질의 인적 자원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미래의 세계를 주도하게 된다고 세계의 석학들은 주장한다. 이러한 세속사적 추세는 혹자들이 한국을 말세의 예루살렘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과 놀랍게도 맞아들고 있다. 영적 부흥과 육적부흥은 함수관계가 있음에 틀림없는 모양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세계사의 변천과 관련하여 한국의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개신교는 지금 선교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제2의 탄생을 위한 몸부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불행히도 없다고 하면 작금의 교회들의 행위로 보아 하나님의 강압적인 조치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수는 7백만이 넘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 놀라운 성장에 기뻐하고 자랑도 한다. 그러나 정말로 이 7백만을 자랑으로 생각해야 할지 부끄러움으로 생각해야 할지 얼른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 이유는 7백만이 다 진실한 크리스찬이나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수의 많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나라 교회는 교인수 증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서 세워주는 데에는 정열을 쏟지 않았는가. 주님은 질적인 성장을 원하시는데, 이제 복음을 받은지 100년 됨을 가름하는 시점에서 한국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실하면서 한 사람의 제자적 성장에 열심을 쏟아 다가오는 세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각 교회는 교회 교육의 황금기회인 여름성경학교를 재조명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일꾼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속히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544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 봄시다.

열매 차차 이뤄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 오리로다” (시 126:5,6)

이 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어떤 사람이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포로로 남아 있는 동족들이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을 소망하고 있다. 포로로 자유가 없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난 5월 한달 동안은 총동원 전도의 달이었다. 교회 성장을 앞세우기 이전에 악마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안겨주어야겠다는 뜨거운 심정으로 전 교인은 불붙고 있었다. 이러한 위력앞에 수많은 새생명이 탄생하였고 저들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한 영혼을 사랑하여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린 결과였다. 씨를 뿌린 것으로 사명은 다했을까? 아니다. 씨를 뿌리는 것 보다는 어떻게 키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씨는 뿌렸는데 잘 가꾸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열매는 커녕 그동안 노력의 댓가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너나 할 것없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하겠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는 땀을 흘려야 한다. 정성을 쏟아야 한다.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쏟아야 한다. 어찌 노력없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으랴!

충현의 성도들이여! 씨를 뿌립시다. 그리고 악마의 포로된 자들로 하여금 주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정성과 사랑으로 키웁시다. 그래서 열매를 거둬봅시다. 각반이 풍성히 차도록! 각 구역이 풍성히 차도록! 아니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민족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말입니다.

김 하 진 목사

(6지구심방·성가부 지도)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6 월 중 들어온 도서 -

I. 구입도서

1. 기독교교육

- 1) 주일학교 교육백과; 타운즈, 엘머저. 신원삼역. 국제문서선교회, 1980.
- 2) 성도의 생활 - 새신자를 위한 가이드 북; 박요한저. 부흥출판사, 1981.
- 3) 선교사 한국어 교본; 고일선간. 생명의말씀사, 1980, 295P.
- 4) 교회계절학교; 오영호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1.

2. 전도학

- 1) 주님의 전도계획; 골먼, 로버트저. 홍성철역. 생명의 말씀사, 1980, 128P.
- 2) 세계선교와 기도정보(상); 존스틴, 패트릭저. 조목길역. 생명의 말씀사, 1980, 286P.

3. 구약

- 1) 욥의 신앙; 루이스, 제시켄저. 이창우역. 중현출판사, 1981, 252P.
- 2) 신구약 중간시대; 러셀, D.S.저. 임태수역. 전광미디어사, 1980, 212P.

4. 조직신학

- 1) 영적혁명; 브라이트, 빌저. 임성택역. 생명의 말씀사, 1980, 206P.
- 2) 기독교신앙 ABC; 이종윤저. 중현출판사, 1981, 60P, 19cm.

5. 기독교윤리

- 1) 성서적 가정관; 딘, 어디스저. 도한호역. 요단출판사, 1980, 380P, 20cm.
- 2) 풍성한 삶; 보우만, 레이저. 이종오역. 생명의 말씀사, 1981, 174P.

6. 신약

- 1) 산상보훈강해; 이종윤저. 중현출판사, 1981, 86P, 20cm.

□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읍시다 □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
.....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
.....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
.....한다는 것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
.....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
.....다. 우리 신앙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
.....한 책들을 골라 적어도 한 달에 책 한.....
.....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
.....도에서 우리는 전교인들을 향해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중현」편집실.....

◇ 책소개 ◇

헨리 엠 모리스저 조진경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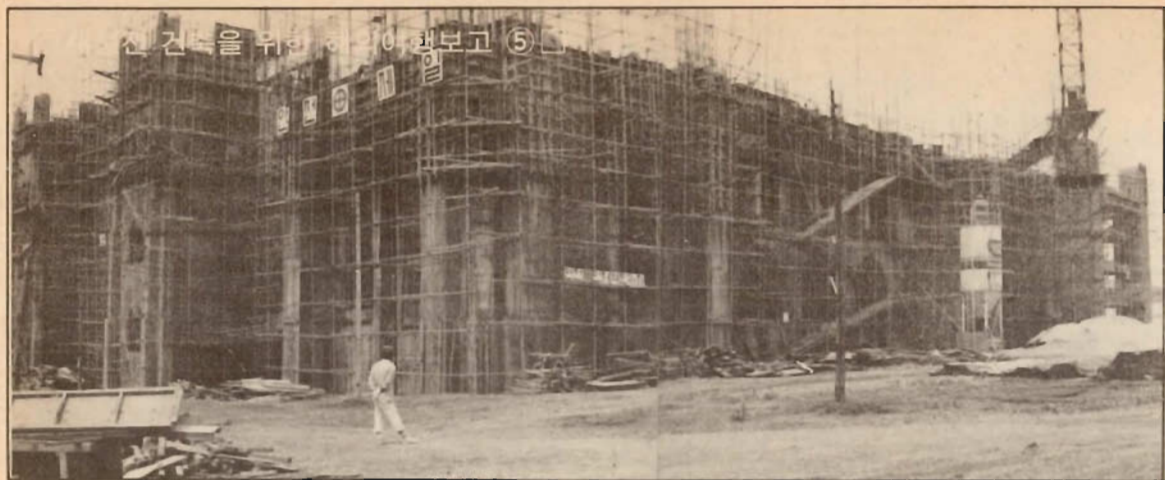
진화나 창조나

선구자사 250P 2,500원

기독교신자들까지도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신앙의 문제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교육되며 오도되어지는 오늘에 우리 한국에서도 뜻있는 기독교 과학자들에 의해 '창조과학회'가 발족된 것은 다행한 일이거니와 본서는 미국의 창조과학 연구소에서 펴낸 것으로 소장 모리스 박사를 포함한 23명의 저명한 기독교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저술하였다. 이들은 기원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성경적 입장에서 반증할 때는 대신 순수 과학적 관점에서 엄격하게 검토하였다. 그러면 서도 이 주제에 관심과 조그만 열성이라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이해하도록 쉬운 용어로 흥미있게 쓰려고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일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나 교회학교 교사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그 내용을 장별로 소개하면, 1장 진화나 창조나, 2장 혼돈이나 조화나, 3장 상항이나 하항이나, 4장 우연 발생적인가 계획적 창조인가, 5장 균일설이나 천변설이나, 6장 지구의 연령 논쟁, 7장 원숭이나 사람이나 8장 성경에 나타난 창조론.

본서가 창1:1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신앙고백으로 가지는 우리 중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성경과 일반 서적 그 사이에 끼여 있어야 할 책으로 여겨져 추천하는 바이다.

김익경 전도사(초등부부지도)



보다 나은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최 환 집사

(새성전 건축 현장감독)

□ 영국편 □

18일째 되는 날, 날씨가 변경되는 오늘은 1981년 1월 23일로서 비행기내에서 맞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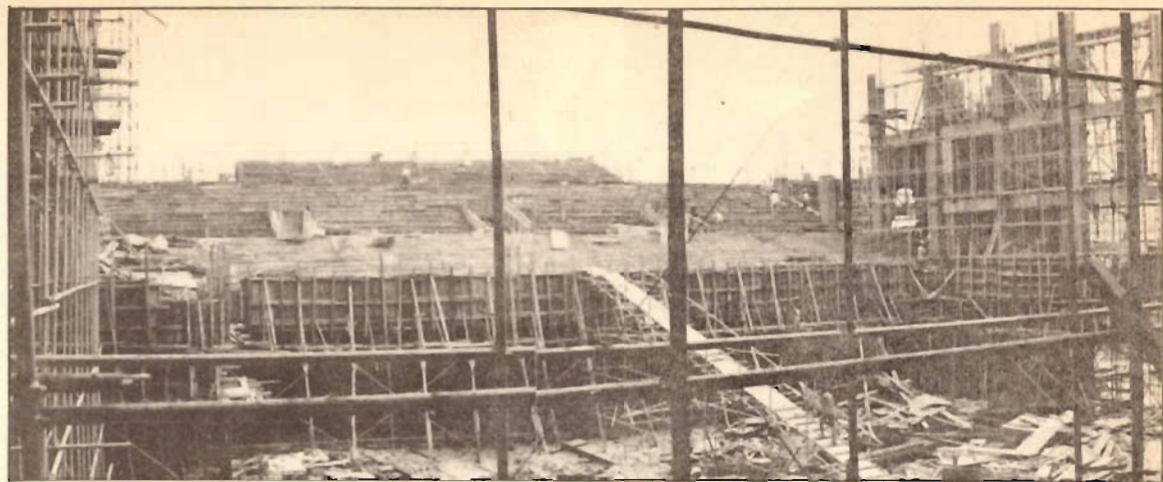
미국 뉴욕에서 영국 히드로(Heathrow) 공항에 도착한 것은 약 10시간 정도 비행한 후였다. 서울에서 떠날 때 영국에 대해서는 우리 일행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미리 한경일 장로님으로부터 여행에 대한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좀 놓였으나 공항에서 나갈 때 공항 검열관이 우리 일행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조사를 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업무용이나 상용 여권을 받은 사람은 가는 곳이 뚜렷해야 하며 연락처를 미리 알아서 가야 한다. 우리 여행은 다만 교회를 보다 더 잘 짓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건물 이름만 대어주어진 안되었으므로 좀 머뭇거린 셈이다. 제일 편리한 것은 관광여행 왔다고 하면 더 조사할 것도 없는 형편이다. 여행을 하실 분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사보이코트호텔(Savoy Cotty Hotel)로 갔다. 호텔은 비교적 조그마한 편인데 깨끗했으며 숙박료는 31파운드, 한국돈으로 약 55,000원 정도이며 호텔요금과 물건값은 상당히 비싼 편이어서 절약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텔 입실을 마치고 거리도 익혀둘 겸 옥스포드가(Oxford Street)를 거닐었다.

이튿날인 19일째 되는 날, 웨스트민스터 애비(Westminster Abbey)와 영국의회(The House of Parliament) 쪽으로 향했다.

웨스트민스터 애비 앞에 서서 보니 참으로 장관이었다. 돌들을 잘 닦지를 않아서 그런지 시커멓게 녹이 쓴 것 같이 검어져 있었고 외부들의 조각이나 돌을 다듬은 것은 미국에 있는 것들보다 더 섬세하고 정교하다. 주위 조경이나 나무들은 조화가 잘 이루어졌으며 주위 환경도 깨끗이 정돈되어져 있었다. 우리가 건축역사나 기타 책의 그림으로만 보던 것이 오늘에 눈앞에 전개되니 감개가 무량할 뿐, 일행은 한참을 서서 쳐다 보았다. 형식은 고딕식으로 내부에는 여러개의 묘(무덤)들이 있는 중에 성전 들어서자마자 중앙에 무명용사를 추모하는 비문이 있는데 이것은 1차대전 당시의(1914-1918) 프랑스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써어져 있다. 그외 헨리 3세의 것과 헨리 7세의 것과 엘리자베스 1세의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성전 벽이나 성단 뒷쪽에는 무수한 유명인사나 왕들의 무덤이 있다. 영국의 고딕건축은 449년 ~ 1066년까지는 앵글로 색슨시기(Anglo-Saxon Period)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헨리 1세, 헨리 2세 때는 노르만시기(Norman Period, 1066-1189)로 구분



하며 이 웨스트민스터 성전은 초기 영국시기 (Early English Period, 1189~1307)로 들어가며 헨리 3세 때 1245년에 시작해서 1269년까지 완공을 했다고 한다.

높고 좁은 첨두야치는 건물을 더욱 웅장하면서도 가늘고 높이 보이게 하였으며 돌출한 기둥과 급경사진 지붕이 특징이다. 내부의 기둥머리 부분은 깊은 음영으로 고사리 모양이나 주먹모양의 장식인 창호 주변의 장식으로 쓰여졌다.

웨스트민스터 성전을 돌아나오니 바로 영국의회가 있는 의사당(The Houses of Parliament)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템즈강변으로 길게 의사당 건물이 펼쳐지는데 그 아름다운 탑과 수직으로 뚫뚫 뻗은 기둥들의 하나하나가 질서와 균형유지, 어디 하나 흠을 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으뜸이라 하겠다.

특이한 것은 창문의 살이라든가 홈과 줄눈 모양이 섬세하고 가늘어서 우리나라 돌이나 기술로서는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이다. 여기에 조화를 맞추어서 동으로 만들어 붙인 창살이나 머리부분의 모양은 여러가지로 배워서 모방할 것은 모방하고 변형을 하여서 창안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너무나도 풍부하며 이런 건물 하나에서만도 수천종의 응용 디자인(Design)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에서 조그마한 국가에서는 한참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한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계통의 초·중고등학교 선생들이나 과학이나 공장, 건축하는 설계기사나 그 외의 실무자들은 자주 자기들의 전공분야에 대해서 해외 견학이나 여행이나 유학들을 많이 하여 좋은 것들을 배워와 그들 나름대로 창조하고 창안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면 조국의 발전은 가속도로 발

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국가 기관이나 개인 기업에서 그 단체의 우두머리되는 사람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서 배워와야 되겠지만, 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것은 실무자들이나 초보자들이 많이 나가서 배워와야겠다고 생각이 된다. 비근한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일본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이 된 것은 비교적 30년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사람들의 해외 여행율을 따져본다면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개인적으로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관광이나 해외여행제도가 잘되어 있다고 보겠다.

의사당 내부에 발을 더딘 홀의 벽이나 천정의 조각이나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의 찬란했던 문화를 한눈으로 읽어볼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대한 장면이 전개된다. 이



(런던가교)

의사당의 내부의 특징은 홀이나 복도에는 대리석이
나 화강석을 많이 사용했지만 의회장내나 전실이나
접견실이나 왕의 칩무실 같은 곳을 볼 때 거의가 목
재로 조각을 해서 금칠이나 은칠을 하여 고급스럽고
점잖게 실내장식을 했는데 분위기는 온화하고 준엄
한 분위기가 풍겨 나오고 바닥도 마룻바닥에 카펫
을 깔아서 처리했다. 어느 방엘 들어가나 모두가 조
각이고 역사를 증명하는 그림으로 장식이 되어 있으
며 책상이나 의자나 등 모든 것이 고전미가 나는 옛
것을 현대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건물마다에
예수님의 초상이나 그리스도교에 대한 사상이 들어
가 있지 않은 곳이 없고 건물의 머리부분에는 거의
십자가가 달려 있었다.

단 한가지 눈에 거슬리는 것은 이렇게 준엄한 실
내장식이 있는 방에 마이크나 스피커 장치가 수십개
가 붙어 있어서 실내장식 면에서 볼 때는 조잡스럽
고 어수선하게 보이는 것이 아쉬웠다.

우리 일행은 국회의사당이 템즈강변에 있기 때문
에 쉽게 런던가고(London Bridge)와 템즈강물을 볼
수가 있었다. 강의 폭은 그리 넓지 않지만 소형의 많



〈웨스트민스터애비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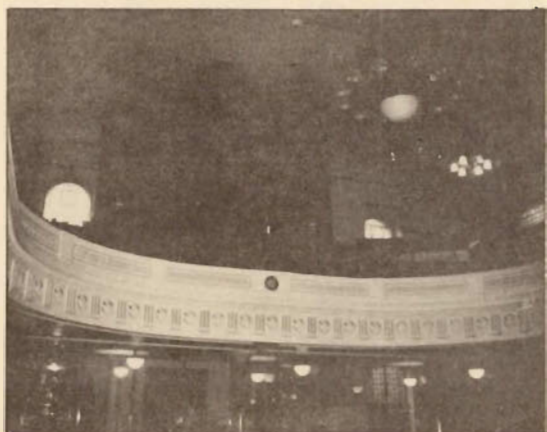
은 배들이 왕래하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우리가 서울서 듣기에는 템즈강물의 오염이 극심
했는데 영국 국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강물을 보니 뿌옇고 누렇게 보였다.

우리 일행은 버킹검 궁전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
데 밖에서 들어가려고 하니 개방이 되질 않아서 밖
에서만 안의 건물을 들여다 보았다. 건물 모양은 르



〈웨스트민스터애비〉



〈요한웨슬리가 세운 교회의 내부〉



〈성 바울성당의 전경〉

네상스식으로 보였고 이 건물은 고딕의 다른 건물보다 거창하게 장식을 하지는 않았고 다만 위엄있게 지어진 건물이다. 밖에서 보더라도 의전행렬이 있으면 여러가지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병사들이 지키는 모습만 보였다. 의전행렬은 오전 10시에 한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또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바울성당쪽으로 향했는데 10분도 못되어서 도착했다.

이 성바울 성당은 1631-1638년까지 건축한 건물로 르네상스식의 건물인데 영국의 르네상스식은 엘리자베드여왕(1558-1603)이 재위기간에 이 스타일이 쓰여지기 시작하여 점차로 귀족들이 궁전 건축을 하기 시작하였다. 엘리자베드식은 양식적으로 외국식 르네상스를 모방하였을 뿐이고 구조는 고딕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영국에 르네상스 전성기가 접어들면서 이탈리아에서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가 가장 위대한 작가로 큰 공적을 세운 것과 같이 영국에는 두 사람의 건축가가 아니고 존스와 크리스토퍼를 들 수 있다. 존스는 그의 탁월한 개성과 천재적인 르네상스 건축의 신 기원을 세웠는데 이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성바울 성당(St. Paul Covent Garden)이다.

이 르네상스식의 성당은 로마식의 건축형식을 직접 변형한 형식이기 때문에 로마식의 둥근 모양의 돔

지붕으로 중앙을 이루고 모든 창문의 행태는 고딕의 첨두아치가 아닌 둥근 반원아치가 연속으로 이루어진 형태이며 고딕건축에서는 모든 돔의 다듬는 형태를 잔다듬으로 했지만 르네상스에서는 기단부분 즉 건물의 아랫부분은 거친 돌다듬을 한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평면 형태는 연속 돔형태를 이루어 조각이나 천정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아하게 보인다.

바로 이 성전에서 영국의 황태자인 찰스 황태자가 결혼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이곳 견학을 마치고 우리 일행은 요한웨슬리가 세운 웨슬리 교회를 찾아갔다. 그곳에 있는 택시운전사에게 웨슬리교회가 어디 있다고 하니 그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 이 교회는 런던 시가지 중심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다. 교회 내부에 들어가보니 교회는 조그마하고 내부가 아담하였고 2층으로 되어 있으며 창문은 아치형이고 색유리(Stained Glass)를 끼었으며 후면벽 강대상 맞은편 벽에 파이프올갱이 배치되어 조화를 잘 이루었다. 이 교회가 바로 감리교회의 발상이기도 한 요한 웨슬리가 세운 교회라고 했다. 좌석수는 약 500~600석 정도로서 19세기에 들어선 근대형의 교회라고 보겠다. 내부장치는 고전식의 무늬라든가 산테리아, 파이프올갱이 그런대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칼빈주의 기독교관 ①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길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도 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다.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한다.”(마16:13, 14)고 대답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독교관이었다. 즉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한 사람과 같은 인물로 보았던 것이다.

엘리야는 아합왕 당시 종교를 탄압하는 아합과 싸우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선지자이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선지자였다. (말4:5; 마17:12)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하면서 눈물로 애국 애족을 외친 선지자였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나 요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본 것은 저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중심하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어떤 여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여자는 단순히 유대인으로 보았고(요4:9) 그 여자의 은밀한 죄를 지적해 줄 때도 선지자로 고백했다. (요4:19)

이상에 나타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독교관을 알 수가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기독교

관을 가지고 있음을 본다. 슈라이어막허(Schleiermacher)는 예수님의 양성을 전적으로 부인하였으며, 리츨(Ritschl)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예수님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행한 공적을 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그가 세상에서 무슨 일(구속사업)을 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며, 인간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리츨의 기독교관은 그의 제자 하낙(Harnack)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하낙은 그리스도를 이상적인 인간의 모델로 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이나 선지자, 혹은 이상적인 인간의 모델로 본다는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성경적 입장에서 바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영적 소경인 상태에서 기독교관을 보았다고 하겠다.

그런데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로 본 사람은 누구인가? 베드로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5, 16)고 힘있게 대답했다. 이러한 신앙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16:17)고 칭찬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영혼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다.

1. 그리스도의 양성

1) 그리스도의 인성

성경은 기독교에 대한 이단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역사상 처음 나타난 이단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요일4:1-3)고 경고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이단은 도케티주의(헬라어 도케오에서 온 말로 “...듯이 보인다”는 뜻)였고 이를 반박한 사람은 익나디우스였다. 이레네우스도 도케티주의에 반박하여 그리스도는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아담의 불순종을 실제 육체적 순종으로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초대교회 변증가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

인할 때 반박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화육의 교리가 무너지게 되며 화육의 교리가 무너지면 메시아의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었다.

다음에 일어난 이단은 그노시스주의(지식이란 뜻)였다. 그들은 철학적인 이원론을 주장하여 영은 무조건 선하고 육은 무조건 악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악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저들의 잘못을 여러 곳에서 지적해 주고 있다. (요1:14; 요일1:1; 요20:27; 히2:4등)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증거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즉 ① 동정녀 마리아에 의한 그의 탄생(마2:1; 눅2:11; 시2:7), ② 평범한 성장(눅2:40, 52), ③ 피곤을 느끼심(요4:6), ④ 주무심(마8:23-25), ⑤ 배고프심(마21:18; 4:2) ⑥ 목마르심(요19:28) ⑦ 분내심(막10:14; 3:5), ⑧ 동정심(마9:36; 막1:41), ⑨ 기뻐하심(요15:11), ⑩ 슬퍼하심(마26:37), ⑪ 시험을 받으심(마4:1; 히4:15; 2:18), ⑫ 고난을 받으심(사53:5; 히5:8; 2:10), ⑬ 죽으심(마27:50; 고전 15:3) 등은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신 분이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2) 그리스도의 신성

어느 시대나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파괴하는 이단은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무신론적 사상도 있었지만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신앙도 있었다. (요일2:19)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생기고 나서 얼마 안되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새로운 이단이 생겼다. 그런데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은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보다 성경적으로 밝히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오늘날 교회내에서 일어나는 이단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시2:7; 골1:15)을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았으므로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유주의자들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과 다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① 구약시대 하나님에게 사용되었던 명칭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히브리어의 “아도나이”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큐리오스”란 말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신약성경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것은 구약의 하나님(아도나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가 되신 것 같이 신약에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큐리오스)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이며, 초자연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사40:3; 말3:1→막1:3, 렘9:22→고전1:31; 고후10:17; 롬2:28→행2:17-21; 롬10:13; 시102:25→히1:10, 기타 눅2:11; 빌2:11, 롬10:9; 막2:28; 막12:35-37; 눅2:11; 행10:36; 고전2:8; 약2:1; 계17:14; 19:16; 요20:28; 13:13 등)

또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신 것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이다. (사7:14; 마1:23) 여기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누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한 분밖

에는 없다. 본래 예수란 말은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란 말이며 그 뜻은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며 동등하다. 불가분리의 신적 본체와 모든 신성에 완전함과 권능이 동등한 의미 안에서 삼위일체에 속한다.”

②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들이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즉 그의 ㉠ 영원성(사9:6; 잠8:22; 미5:2; 요1:30; 8:50; 17:5,24; 계1:8), ㉡ 불변성(시102:26; 히1:11-12; 13:8), ㉢ 전능성(마28:18; 11:27; 엡1:22; 히1:3; 요5:21), ㉣ 전지성(마9:4; 요2:24; 16:30; 6:64; 마16:21; 행2:37-41; 마26:34; 요21:13-19), ㉤ 전재성(마28:20; 요3:13) 등이다.

③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행하신 일들을 보아서 알 수 있다.

㉦ 창조자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 천문계를 지배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이상한 별들을 보고 따라왔다. 이때의 일은 자연 현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였다. 그래서 무더 선생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무식한 어부들은 고기로 끌고, 유식한 박사들은 별로 끌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태양이 세 시간 동안이나 빛을 잃고 캄캄해 졌었다. (눅23:44) 이때도 역시 그리스도의 능력이 태양을 지배한 것이다.

● 바다를 지배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다가 풍랑을 만났다. 이때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

숨으로 바다를 꾸짖어 즉시 잔잔케 하였고(마8:23-27)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도 마음대로 지배하였다. (요21:6)

●식물계를 지배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떤 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이었다. 시장하여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으려 하였으나 얻지 못하게 됨으로 저주하여 마르게 하셨던 것이다. (마 21:18-22)

●동물계도 지배하였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들린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을 지배하던 귀신들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였고 그 돼지들은 벼랑으로 떨어져 죽었다. (마 8:28-34)

●인간을 지배하였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사람을 세번 살린 일이 있다. 나사로(요11:43)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막5:21-24; 38-43; 눅8:40-42; 49-56),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독자(눅7:11-17)를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눅27:52)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아직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던 자들을 살리셨다. 이

것은 그가 하나님이 되신 증거이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했다. 이때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분 외에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저들의 생각은 옳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마9:1-8; 막2:5-10) 또한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셨다. (요8:1-11)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사죄의 권한이 있음을 전파했다. (행10:43)

㉡ 예수님은 기도와 경배를 받으신다.

누가 인간으로부터 기도와 경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한분 뿐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경배를 받으셨다. (요14:13; 16:23-24; 9:38; 마2:11; 14:22-33; 24:51; 28:17)

그런데 베드로는 고벨료의 경배를 거절한 일이 있고(행10:25)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를 고쳐 일으켰다. 그런데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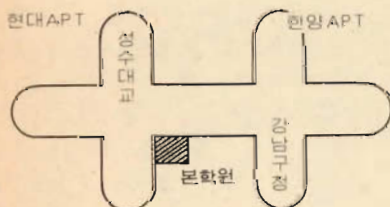
네 사람들이 저들에게 경배하려 했는데 같은 인간에게 경배하는 것은 잘못임을 지적했다. (행14:15) 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을 때 경배를 거절했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했다. (계19:10)

이와 같이 사도들과 천사들도 경배를 받지 못했으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경배를 받으셨다.

찰스·헛지(Charles Hodge)는 그의 조직신학에서 말하기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식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감정을 그에게 기울이도록 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이교도들과 다른 점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양한 것이다”고 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가?”라고 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성경이 말하고 초대 교인들이 믿고 있던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잘못된 기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을 떠난 사람이며 예수님의 교훈과 권위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하겠다.

운전을 배워드립니다



●수강료

제 1 종 반 148,800원
제 2 종 반 108,600원
숙 성 반 63,400원

1. 충현교회 교역자는 50% 장학금을 드립니다.
2. 충현의 가족을 위하여 별도반을 신설했습니다.
3. 면허 취득때까지 책임 교육합니다. (1종에 한함)
4. 시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이내 수료)

●문의처 : TEL. 56-2866, 555-3504

●노선버스 : 11, 14-1, 69-1, 83, 137, 46, 117, 14, 21, 24, 78, 571.

한미자동차학원

원장 김 영 근 집사

권찰이 갖추어야 할 일 (4)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한다—

총동원 전도의 달로 얻어진 태신자를 육성하는 데 있어 우리들의 자세를 지난 달에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이 달에는 육성의 목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실은 이 문제는 어떻게 새 신자를 육성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새신자를 육성하는데 있어 그 목적, 「어떠한 신자」로 키우느냐 하는 뚜렷한 뜻대가 서 있지 아니하면 참 신자로 키울 수가 없고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목적을 바로 정하고 일군들이 수고할 때는 그 육성방법이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장한 성도로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 신자 육성의 목적이 뚜렷해야 하겠다.

● 새 신자 육성의 목적

1. 하나님의 말씀(성경)에 두어야 한다.

새 신자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신앙이 자라날 수 없으며 신앙이 자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러므로 새 신자를 육성하는 제 1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자로 키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게 하며 배우게 하고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믿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항상 기도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믿음이 자라며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열매있는 생활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새 신자가 믿음이 생겼을 때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 같이 믿음대로 한 가지씩 과감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키워야 하겠다.

2. 구원의 확신에 두어야 한다.

새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 새 신자는 기쁨에 찬 소망 중에 활기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신자는 자기(옛사람)를 이기며 죄악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3. 봉사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데에 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된 신자는 이제 은혜 충만하여 성도와 의 교제생활을 하도록 키워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열심이며 교회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성도로 키워야 한다.

이렇게 새 신자 육성의 목적을 뚜렷히 세우고 키울 때에 그 새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며 이웃에게 선한 열매를 맺으며 자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귀한 성도가 될 것이다.

총현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여,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새 신자를 키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창업 48년의 신용

남 문 당

금·은
시 계

金正泰 집사

약도

터미널 강남지하상가 (중앙분수대) 599-3776, 593-0192

해외선교지·선교사 소식

본 난을 통하여 그동안 해외선교지, 선교사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교우들의 기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월간 중현 편집실의 배려를 감사드립니다. 금번호부터는 몇 지역씩 좀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애굽—이 준 교 선교사

* 선교사님으로부터의 편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님 여러분들과 회원 및 온 교우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감사와 아울러 문안을 드립니다. 보내어주신 선교비는 6월 29일자로 감사히 수령하였읍니다.

지금은 이곳 카이로 역시 한 여름입니다. 요즈음은 매일같이 섭씨 4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 주십시오. 다음 학기의 아메리칸 대학 입학허가서와 등록금 통지서를 송부하여 드립니다. 등록은 9월 중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내내 주안에서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4일 카이로에서 이준교 선교사 드림.”

이 선교사님은 1981년 9월부터 1982년 5월까지의 아메리칸 대학 제1학년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내온 서신에 의하면 본대학 등록금은 한 학년당 \$4,000이며 성도들의 기도와후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선교활동

1981년 5월 24일(주일)에는 카이로 시외에 있는 한 교회(Barrage교회)에서 주일에배 설교를 하였고, 5월 31일(주일저녁)에는 로드·엘 화람교회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6월 17일 주일저녁에는 자·툰(Zeitun)교회에서 수단 청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8:38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 분 빌립을 생각케 하는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본교회 담임인 부슈라 아스야트 목사님이 물그릇을 들고 도와주었습니다. 애굽을 복음화하는 한국선교의 장래를 비추어주는 성령님의 인도를 체험했습니다.

6월 17일-19일에는 카이로 한인교회 성도들과 함께 유서깊은 호렘산 꼭대기에 올라갔읍니다. 시내산이라고도 부르는 이곳은 모세가 소명과 율법을 받은 곳으로서 이곳에 오른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사명과 복음을 다시금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 출애굽의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호렘산 산꼭대기에서

—카이로 한인교회 성도들과 함께〉

* 기도부탁

- ①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 ② 아메리칸 대학 입학이 잘 되도록.

칠레—유재일 선교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칠레 한인연합교회(담임목사 유재일)는 1981년 6월 7일(주일) 오후 1시에 정기적인 예배를 은혜중에 드렸습니다. 유선교사님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찬송 488장을 드리고 이어 권효원 집사님이 기도하였고 창 12장 10-20절 봉독, 장년성가대 찬양이 있는 다음 “아브라함의 범죄”란 제목으로 선교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예배후에는 6월 정기제직회가 있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새성전 대지 매입과 교포사회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집회인원은 유초등부 28명, 중고등부 13명, 청년회 8명, 주일낮 예배 123명, 밤예배 56명, 삼일기도회 20명이었습니다. 본교회는 유선교사님을 모시고

해외선교지·선교사 소식

신속한 부흥이 있을줄 믿습니다.

* 선교활동

6월 29일에는 한인연합장로교회 대지 340명을 매입기로 하고 계약체결하였으며 그 전날 28일에는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총액 \$25,000 작정 현금포함) (본선교부 \$1,000 현금함)

* 3/4분기 선교사업 계획

7월 7일 교아원과 자매결연, 7월 13일부터 원주민 장로교회 및 개척교회 순방, 7월 15-17일 한인교회 교사수련회인도, 8월 1일-3일 본부 시찰단과 칠레 장로교 총회장회의, 8월 10-20일 사단법인 한인연합 장로교회 인가완료, 한국 장로교 선교부 인가완료, 8월 17일부터 한인교회대지 임시건물 수리 및 건축, 9월 나사로학교 설립운영하며 원주민 결인들을 초청 만찬과 집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원주민선교에 본격적인 첫걸음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전화번호변경: 222279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도부탁

- ① 교회 및 선교부의 등록을 위해
- ② 교회대지매입 및 건축을 위해

□ 기타 선교지·선교사 소식 □

△ 인도네시아—서 만 수 선교사

① 성경발송—6월 2일 중부자바의 개척교회들에게 신약성경 1,000부를 발송, 6월 15일 말레이시아 중국인교회에 인도네시아 성경전서 20권 발송.

② 세미나계획—7월 28일(화)~31일(금)까지 중부자바 중심도시 쏘로에서 교역자 약 500명을 위한 세미나 개최 예정 (강사: 프레터스 목사-전 인도네시아 복음주의교회 협회장, 정소라전도사, 한승인 선교사 등), 저녁부흥회는 2천여명 회집예상

③ 오지개척—장년 20명, 어린이 1명 결신, 58명에게 세례, 6월 1일 중부자바 웨루촌락에 존·에디 목사 파송.

△ 홍콩—홍종만 선교사

① 마카오교회—북건성 사람들이 계속 중국 본토에서 나오고 있고 이들 위한 교회 및 성경학교 설립이

요망됨.

② 한국학원 어린이 30명, 교사 2명을 인솔, 모국방문 수학여행차 일시 귀국하여 8월 3일-7일까지 체류할 예정임.

△ 서독—육호기선교사, 박용삼 평신도 선교사

육호기 선교사님은 한인교회 수양회와 '81유럽전도대회(1981.8.9-15) 준비관계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시며, 박용삼 선교사님은 6월 1일 모라비안 선교에 관한 주요 저작들을 본부에 보내오셨으며 논문작성도 끝내고 수정 보완중이라 합니다.

△ 호주—김태현 선교사

6월 21일 호주연합교회 3월 기념예배에 참석, 성경봉독, 특송 등을 담당하시는 등 대외활동에 힘쓰시며 또 대심방 계속중이고, 선원선교활동 주 4일 계속 중입니다. 특히 선원 전원이 중공인인 경우보다 홍콩인이 섞인 배의 중공선원들 표정이 밝음을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 아르헨티나—백성룡 선교사

* 공한미착

△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6월 14일 아순시온교회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로 피선되었고 6월 22일 세둘라(영주권) 취득하였고 6월 30일 위임식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계속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기도 부탁해 오셨습니다.

△ 인도—엘리아 겔간

* 공한미착

△ 일본—유병세 평신도 선교사

6월 16일자로 선교사님은 에리모 진료소장으로 전근하시고 이제 새로운 선교지로 삼고 수교하시게 되었습니다.

□ 본부소식 □

해외복음선교회장 최석주 장로님과 지도 김영희 강도사님 일행은 7월 13일 저녁 6시 KAL 002기 편으로 세계 선교지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6월 중 새 교우 명단

-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1 지구

안암구역 한춘실
도봉3구역 강홍례
도봉3구역 김문정
미아5구역 임옥재
길음3구역 김성군
상계2구역 이병근
삼선1구역 여위남
정능1구역 김한성
미아2구역 동상례
성북구역 민대식
쌍문구역 김정숙
성북구역 김정옥
쌍문구역 하명숙
쌍문구역 윤장식
쌍문구역 이명옥
중앙2구역 송금순
중앙2구역 김희숙
동소문구역 양치호
월곡구역 김만기
정능1구역 황선광
도봉2구역 김용호
미아7구역 정정자
보문구역 이기훈
수유3구역 이미현
안암구역 박운자
중앙1구역 박준원
광희1구역 김영순
정능2구역 김재영
삼선1구역 이부순
안암구역 최형식
광희1구역 조계필
동선구역 양홍건
미아7구역 한상근

● 2 지구

마장구역 최양순
구의2구역 조동환

황학구역 이춘자
전동2구역 안정희
송정구역 김수남
홍익구역 이춘희
전호구역 서귀례
도선구역 임정규
풍납구역 이복도
행당1구역 안인실
행당1구역 한순덕
면목1구역 양소순
풍납구역 안용만
도선구역 임준준
도선구역 최금자
황학구역 박원신
이문2구역 임경희
중화3구역 신우만
행당1구역 이종섭
둔촌2구역 김경자
이문1구역 박종걸
담십리구역 장영환
군자구역 임영식
담십리구역 김경자
둔촌2구역 정현희

● 3 지구

잠실4구역 우경이
성수2구역 최현정
신당4구역 김영민
악수1구역 장성교
잠미구역 조선희
시영1구역 이순식
신당4구역 이순준
성수1구역 이영희
신당5구역 최성자
광희2구역 김은영
익수2구역 이따나
지왕2구역 주영환
신당3구역 신정숙

왕십리구역 김수자
시영3구역 이수경
자왕2구역 한명옥
쌍림4구역 김용자
신당4구역 장옥분
신당4구역 박원신
신당4구역 김영환
장충3구역 김봉순
쌍림4구역 박길자
장충3구역 이명자
화양2구역 전봉이
화양2구역 신삼일

● 4 지구

도곡구역 김영혜
은마구역 구순희
현대구역 김연순
강남구역 김옥수
은마구역 박종태
이태원구역 황현덕
정당3구역 김옥경
정당2구역 류효순
정당3구역 이범영
이태원구역 조문숙
이태원구역 송동준
이태원구역 조영자
대차구역 최두순
목정2구역 박윤덕
선정1구역 김경순
선정1구역 한명운
선정1구역 김장복
삼정구역 노선숙
한남1구역 윤명립
은마구역 박해숙
성남구역 김원환
개내리2구역 이춘화
정당1구역 김진희

개내리1구역 이기순
현대구역 조하영
정당1구역 명용주
확동구역 현석호
응봉구역 유익숙
도곡구역 김현수

● 5 지구

방배1구역 최금순
방배1구역 노점순
용산1구역 최유신
상도1구역 신옥균
신길구역 열기재
필동9구역 김제훈
반도5구역 김명구
필동2구역 여정숙
서초1구역 심성애
신림2구역 나영식
회현구역 이향란
관악구역 이보성
안암구역 박명옥
신림1구역 하순례
필동4구역 김부길
반도4구역 서영희
필동8구역 이기성
필동1구역 박복수
불천2구역 이화춘
용산2구역 조흥구
서초1구역 강양자
신림2구역 김남석
대방1구역 강현순
필동5구역 백송덕
필동8구역 박미정
상도1구역 황덕윤
필동2구역 김순례
신길구역 이상열
대방1구역 강동신

남대문구역 주영숙
신길구역 이선민
필동9구역 하작은아기
대방1구역 유태영
방배2구역 박재균
용산2구역 곽해경
상도3구역 임영하

● 6 지구

연희구역 김명균
마포구역 김승범
화원구역 임경자
인현1구역 김기곤
화원구역 서양수
진안구역 박순덕
서강구역 우인순
화원구역 정춘식
인현2구역 박길녀
대흥구역 라성희
공평1구역 이인자
개봉구역 정정혜
용문구역 정계자
여의2구역 이형숙
용문구역 강정열
인현2구역 임순영
당신구역 사해경
화곡1구역 박미
광명구역 이경규
이촌구역 김윤복
영리구역 김명숙

● 7 지구

조동1구역 최봉순
오장구역 서달순
가회구역 김명희
중무1구역 나태민

장신1구역 유미숙
장신2구역 김옥연
을지1구역 김성운
오장구역 정경호
장신1구역 박민정
중무2구역 최학철
가회구역 김영규
서대1구역 박대근
서대2구역 윤정복
서대1구역 박철민
역촌2구역 전경일
가회구역 이희철
오장구역 김경혜
호자구역 황윤숙
명륜2구역 방정순
명륜2구역 김예숙
을지2구역 나연춘
연지구 이문남
오장구역 최영준
연지구 이종문
중앙2구역 김봉국
중앙2구역 홍영숙
호자구역 권옥자
송인2구역 최판진
중무1구역 전성수
종로구역 남기영
중무2구역 우성희
역촌1구역 최경애
정운구역 이한림
서대1구역 심정희
중무2구역 박정봉
홍제구역 이선부
홍제구역 이등용
중무2구역 정상석
가회구역 조판순
동송구역 한성현
조동1구역 노성자

* 축하합니다. (6월 중 결혼)

- 김수련양(김분선권사 딸) 9일
- 최광열군(최동규씨 김은애권사 아들)과 황은호양 9일
- 최강진군(신당구역)과 임미자양(용두구역) 10일
- 황주철군(가회구역)과 조문숙양 13일
- 김미지양(제일성가대원) 17일
- 박종태군(김옥순집사 아들)과 곽정원양 17일
- 함태영군과 최정미양(최 환집사 처제) 18일

- 박승배군(임경자집사)과 한홍래양 19일
- 서원모군(서동석집사 조키남권사 아들) 27일
- 최병식군(산교부 교사) 30일

* 위로드립니다. (6월 중 별세)

- 김화애씨(신봉례권사 모친) 5월 26일
- 절대현씨(정영준씨 부친) 2일
- 고주현씨(박은숙권사 시부) 24일
- 박옥남씨(고정임권사 친모) 30일

월간교계 뉴우스

신학교 인가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

한국기독교대책협, 문교부장관께 제출

한국 기독교 대책협의회는 지난 7월 2일 문교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공개질의에 앞서 대책협의회는 「신학교 문제는 한국교회의 전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내외 선교에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며 또한 교단존폐의 심각한 문제까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지난 6월 23일 문교당국의 소수 신학교 인가 발표는 한국교회의 실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신랄하게 강조했다.

질의서에서 「당국은 건전한 신학교에 대하여 1개 교단 1개 신학교를 인가해 준다는(1980년 11월 18일) 공약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이유 무엇이나?」 묻고 「당국은 각 교단에서 교역자 수급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를 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제재를 가한다면 당국과 교회간에 균열을 일으켜 국민 총화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십니까?」라고 질의했다.

총회산하 각기관

여름 수양회 개최

총회산하 각급 산하단체가 여름수양회를 개최한다.

총회교육부(부장 조해수 목사)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설악 파크호텔에서 제11회 전국 교역자 하기수양회를 개최하며 전국주일학교연합회(회장 서재구)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강릉 동명국민학교 및 송정해수욕장에서 제26회 전국주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한다.

또 전국 기독교청년연합회(회장 류성고)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부산 기계공업고등학교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제57차 전국 기독교청년 지도자 하기대회를 개최하며 전국 학생련회(회장 김찬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송전교회당에서 하기수양회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남전도회 전국연합회(회장 우성기)는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해변전도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여전도연합회(회장 계수영)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총회신학대학 대강당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또 8월 6일 밤에는 류관순 기념관에서 선교 찬양의 밤도 개최한다.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청년협 총회

제 8 대 회장에 강준원

13개교단 66명의 총대가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에 예장합동측 소속 강준원집사를 선출하고 부회장에는 김진호, 류성고, 장태봉, 배봉섭, 노재영, 권순익, 김자옥, 그리고 총무엔 김선택, 사무국장엔 손경수 집사를 선임했다.

한국보수교단 기독교청장년 협의회는 지난 6월 26일 중원교회당에서 제 8 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임원 선출과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제 4 회 선교세미나 성황

총회 선교부(부장 안중섭 목사)가 주관하는 제 4 회 선교세미나가 지난 6월 25일 미국 L. A. 올리비안 호텔 특별회의실에서 개최되어 당면한 선교전략 및 정책, 그리고 각 주재국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보고를 들었다.

동 세미나에는 15개국 20여명의 총회 파송 선교사와 총회 선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농어촌교회에 전도비 지급

총회전도부서 1천 3백만원

총회 전도부(부장 박명수 목사)는 어려운 농어촌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와 개척교회 설립비로 1년간 1천 3백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7월부터 매월 지급되는 동 보조금은 총회산하 9개 노회에 속한 농촌교회에 보조케 된다.

군목 자질 향상 위해

총회군목 수련회

총회 군목부(부장 설명도 목사)는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뉴포트호텔에서 군목수련회를 개최한다.

동 수련회에는 교단산하 40여 군목부부가 참가되는데 모든 소요되는 경비는 총회군목부에서 담당한다.

당회장 김창인목사

해외 선교여행차 출국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해외 선교 여행차 지난 6월 22일 출국했다.

이번 여행은 주로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구미 각국에 산재한 한인교회를 찾아 집회를 인도하면서 유럽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들을 통한 공산권 선교의 전락을 수립하고 또한 구미 각국의 성공한 교회를 찾아 교회 성장 성공사례를 수집, 연구하여 앞으로 총현교회의 미래 지향적인 청사진을 만드는 자료를 삼고자 하는데 이번 여행의 목적이 있다.

지난 6월 22일 김포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 7월 5일까지 미국 볼티모어와 뉴욕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7월 6일에는 유럽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연합집회 (육호기 목사 주관), 뉘셀도르프 부흥회 (윤회원 목사 시무), 뉘스브르크 부흥회 (정일웅 목사 시무), 베를린 부흥회 (이순하 목사 시무)를 인도하고 7월 27일-8월 2일까지는 영국 런던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후 다시

독일 함부르크와 덴마크 스톡홀름 (장재영 목사 시무)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후 8월 6일부터 15일까지 서독 비텐이스트에서 유럽한인교회 교역자 연합회가 주관하는 '81 유럽전도대회 (대회장: 육호기 목사)의 주강사로 대회를 인도할 일 예정이다. 대회가 끝난 후 화란,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프랑스의 각 교회들을 방문한 후 9월 2일 프랑스의 파리를 출발, 9월 4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에는 우리 교회의 협동 목사인 이종윤목사가 7월 6일 유럽여행부터 동행한다.

제 1 차 특공대 훈련

북한선교회는 제 1 차 전도특공대 하기훈련을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강원도 정선군 북한선교훈련원에서 실시한다.

그동안 10여차에 걸친 차량전도를 통해 모집한 선교회원과 지원자들로 갖게 되는 제 1 차 특공대훈련은 1주와 2주 코스로 나누어 성경 공부(모세오경, 사도행전)와 전도

훈련, 양육훈련, 경건훈련, 체력훈련, 금식훈련, 기도훈련 등으로 실시되는데 이 훈련의 모든 지휘, 진행은 전도위원회 북한선교분과 담당인 조준상 강도사가 하게 된다.

우기전 장로

세계침구학술대회 참석

본 교회 시무장로인 우기전 장로는 지난 5월 19일-7월 1일까지 열린 세계 침구학술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고 귀국했다.

우기전 장로는 현재 우기전한의원의 원장으로 계시고, 원광대학의 외래교수로 계신다. 우장로는 지난 2월 경희대학교에서 한의학박사 학위를 받으셨다.

김영삼 장로

서예·도예전 열어

우리 교회의 시무장로인 김영삼 장로가 지난 7월 9일부터 15일까지 부산 로타리 전시관 5층에서 그동안 준비한 100여점의 서예·도예로 전시회를 가졌다.



특허 제17807호
제75332호
제62131호

■ 야자수미니정수기수질검사표 ■

(서울시립위생연구소 77-155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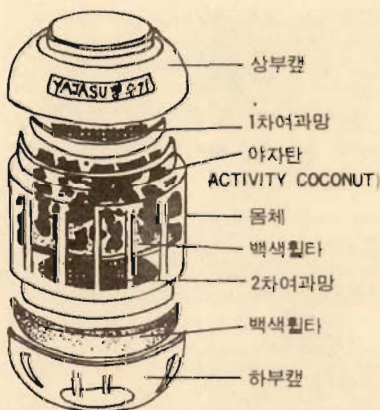
성분	사용 전	사용 후
일반생균수/ml	2,700	80
대장균	양성	음성
염소이온	7.1	14.2
질산성질소	0.3	1.0
암모니아수질소	검출	불검출
탄	정	음료부적

株式會社 韓通 영업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56 삼흥빌딩
(794) 8331 · (793) 2944

새롭고 혁신적인

야자수 정수기



(효능)

- ◎ 센물을 단물로 만듭니다.
- ◎ 대장균, 일반생균 제거
- 물속의 유기물 흡착, 방사능 물질, 녹물, 냄새, 철분, 염소, 기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수질에 따라 약 2. 3개월에 1회 교환함.

■ 판매처 ■

수출 및 백화점 유명약국, 슈퍼마켓에서 판매중.

소비자가격 1,000 원

최석주장로 · 김영휘강도사

선교지 순방

7월 13일 - 9월 14일 까지

해외복음선교회 회장인 최석주 장로와 해외복음선교회 지도인 김영휘 강도사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를 순방하기 위해 지난 7월 13일 오후 6시 김포공항을 떠났다.

이번 순방은 ① 총현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현지에서 만나 현지 상황을 파악하여 올바른 선교 정책을 의논하고 수립하며 ② 해외한인교회와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선교협력을 꾀하고 ③ 유럽의 공산권 선교기관을 방문하여 공산권 선교전략의 기초를 확립하고 ④ 선교훈련단체를 방문하여 장기적인 훈련계획을 세우며 ⑤ 선교 후보지를 물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

9월 14일 귀국 예정인데 순방할 곳은 캐나다, 미국, 칠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서독,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이집트,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홍콩, 일본 등 16개국이다.

당회장 부재시

주일설교 - 협동목사가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해외여행중 각 업무분담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했다.

- 당회 · 권찰회 - 김원남목사
- 제직회 - 장정일목사
- 주일 낮 설교 - 김희보 · 윤영탁 · 신성종목사
- 주일저녁설교 - 부목사
- 수요저녁설교 - 이성근목사

영아부 4부 집회

주일학교 영아부는 격증하는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어 현재 3부로 모이는 집회를 4부로 조정 모

성경연구원 수료식

지난 6월 21일 저녁예배시에

지난 3월 전교인 성공공부를 실시, 매일 저녁 실시했던 성경강좌가 지난 6월 27일로 1 학기를 마치고 수료식을 거행했다.

매주 월요일은 시편강해 (윤영탁 목사), 화요일은 소선지서 강해 (김

희보 목사), 수요일은 마태복음 강해 (김창인 목사), 목요일은 요한계시록 강해 (신성종 목사), 토요일은 창세기 강해 (이종윤 목사)를 강해했는데 총 수강자는 1,559명으로 이중 이수자가 1,003명, 수료자가 556명이었다.

제 2 학기에는 시편 · 창세기 · 마태복음 · 욥기 · 요한복음을 강해할 예정이며 9월 중 개강하게 된다.



이기로 했다. 4부로 회집됨에 따라 1부를 오전 9시에, 2부를 오전 10시, 3부를 오전 11시, 4부를 오전 12시에 각각 모이게 된다.

제10차 농어촌전도대파송

2차례로 나누어 파송

현지 교역자들과 협의도

매년 하절을 맞아 우리 교회에서 농어촌지역에 전도대를 파송해 오고 있는 바 금년은 10회째로 접어들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도대를 파송할 계획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계 2:10)를 주제로(주제찬송: 새 544장) 파송될 금번 전도대는 우선 대상지역을 충남, 강원도지역과 농어촌지도자 초청시 참석했던 지역, 북한선교분과 및 내지분과에서 추천한 교회중에서 6개 지역을 선정해서 파

송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파송대상 교회의 교역자들과 7월 2일에 기도원에서 모여 사전에 프로그램을 협의하여 현지 사정에 맞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처럼 농어촌 전도대를 파송하는 가운데 목적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다. 곧 그동안 계몽적인 입장에서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 입장으로, 또 금년 들어서는 자립대상에 있는 교회의 영적부흥을 위해 그곳 제직들의 제직훈련도 겸한 계획과 농어촌교회의 지역사회 위치신장등의 목적을 포함케 되었다.

전도대는 2차로 나누어 각 팀마다 대장(지도교역자)을 포함하여 7명을 한 대로 편성하는데 7월 23-25일 저녁에 모여 전도대 훈련을 갖게 된다.

금년에 1차는 81년 7월 27-31일 2차는 81년 8월 17-21일에 파송하게 된다.

김순애 전도사 사임

제 5지구 심방을 담당해 온 김순애 전도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직했다. 김전도사는 직업청소년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직업청소년선교회로 옮겨 산업선교에 전념하고자 본 교회를 사직했다.

한편 고등부 부지도 원동석전도사가 개인사정으로, 어린이새신자부 부지도 인정옥전도사가 결혼으로, 청년부 부지도 황명길 전도사가 미국 유학으로 각각 사임했다.

이진희·유순화 전도사 임명

현정남 전도사는

심방위원회로

한편 김순애 전도사 사임으로 공석이 된 제 5지구 심방에 산업전도부 부지도 현정남 전도사를, 어린이새신자부 부지도에 이진희 전도사(산업전도부교사)를, 산업전도부 부지도에 유순화 전도사(산업전도부교사)를 각각 임명했다.

산업전도회 의료분과

산업전도회(회장 오태희 장로)의 의료분과에서는 7월 19일에 경기도 여주군 지내교회(교역자 한남석)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수고하신 분은 홍충섭 장로(피부과의사) 임필성집사(치과의사) 이갑재 집사(약사) 김종희 선생(내과의사) 김정미 선생(간호원) 그리고 전도대원으로 오태희 장로, 이태규 장로 김경철 장로님께서 수고하셨는데 많은 지역주민들이 진료와 전도를 받았다.

진료받은 자는 치과(59명) 내과(57명) 외과(49명) 피부과(46명) 등 211명이 치료를 받았고 영육의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황기성·오승를 장로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 기증

교회는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우리 교회를 떠나는 황기성·오승를 장로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6월 19일 임시당회에서 황기성 장로에게 공로패를, 오승를 장로에게 감사패를 각각 전달했는데

황기성장로는 1960년 장로로 피택, 21년간 시무장로로 봉직하며 주일학교와 감사, 당회 서기 등으로 수고 하였고 오승를 장로는 1972년도 장로로 피택되어 주일학교 등에서 수고해 오셨다.

황기성 장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오승를장로는 뉴우저지로 각각 이민을 가셨는데 지난 8월 27일과 7월 3일에 각각 출국했다.

인사이동

1. 예배위원회

가. 성가부

① 임 명

제 1 성가대	김상열	베이스
제 1 성가대	오근철	테너
제 1 성가대	이미란	소프라노
제 1 성가대	손영애	소프라노
제 3 성가대	이종윤	소프라노
제 3 성가대	이정미	소프라노

② 퇴 임

제 1 성가대	김경애	소프라노
제 1 성가대	김경숙	앨토
제 1 성가대	김순옥	앨토
제 1 성가대	안동현	베이스
제 3 성가대	원지희	소프라노

2. 교육위원회

① 임 명

어새부	채수경(남)	임시교사
어새부	송초관(남)	임시교사
어새부	송영희(여)	임시교사
어새부	홍희숙(여)	임시교사
어새부	이호성(남)	임시교사
어새부	김창수(남)	임시교사
초등부	안정숙(여)	임시교사
초등부	김명진(여)	임시교사
초등부	이인광(남)	임시교사
초등부	김장권(남)	임시교사
중등부	이승수(남)	정교사
중등부	실지철(남)	정교사
장생1부	김인관(남)	임시교사

② 퇴 임

어새부	유옥련(여)	정교사
어새부	위은성(여)	정교사
어새부	정옥희(여)	정교사
초등부	김수련(여)	정교사
중등부	홍충식(남)	정교사

토막소식

* ... 교회는 7월 19일을 백추감사절로 지켰다.

* ... 전도위원회 북한 선교분과는 6월중에 2차례의 차량전도를 통해 348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 ... 산업전도회는 지난 7월 1일 유년부실에서 월례조찬기도회를 가졌다.

* ... 전도위원회 특수분과에서는 지난 6월 17-20일까지 육군 0000부대에서 3박 4일간 군중사병을 대상으로 군중훈련을 실시했다. 강사는 박동실, 조준상 장도사와 김연이 전도사가 수고했다.

* ... 어린이 새신자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등발된 어린이를 조사하는 일을 7월중에 하게 된다. 또한 7월 10일에는 교사철야기도회를 가졌다.

* ... 영아부는 7월 5일 2학기 성경복습을 선생님들과 함께 가졌다.

* ... 유치부는 7월 5일 2학기 성경복습을, 26일에는 어린이 전도집회를 각각 개최했다.

* ... 유년부는 7월 5일 2학기 성

경시험을, 또한 이날 이성근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성도의 믿음생활」이란 제목으로 교사특강을, 29일에는 성경퀴즈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 ... 초등부는 7월 5일 2학기 성경시험을, 16일에는 교사철야기도회를 기도원에서, 26일에는 구역장 훈련을 시켰다.

* ... 중등부는 7월 5일 2학기 성경시험을, 12일에는 노방전도 및 전도결과보고를, 17일에는 임원, 금요회장, 구역장, 성가대 수련회를 총신대학에서 가졌다.

* ... 고등부는 7월 5일 2학기 성경시험을, 12일에는 신임교사 훈련을, 25일에는 교사기도회를 각각

가졌다.

* ... 대학부는 7월 14일에 회원기도회를, 17일에는 교사기도회를 각각 기도원에서 가졌다.

* ... 청년부는 7월 10일, 하기수 양회를 앞두고 교사기도회를 가졌다.

* ... 장년새신자 I 부는 지난 7월 12일 학생신앙간증회를 가졌고 6월 7일에는 남자 4명, 여자 12명에게 학습을 베풀었다.

* ... 장년새신자 II 부는 7월 19일 세례식 및 수료식을 가졌고 26일에는 성경퀴즈대회를 가졌다.

* ... 장년부는 7월 28일 교사기도회를 가졌다.

* ... 산업전도교육부는 지난 7월 5일 산업전도교육부 5주년 기념에 배를 드리고 18일에는 반장, 임원 훈련을, 19일에는 김하진목사를 강사로 교사특강을, 26일에는 회원기도회를 각각 가졌다.

* ... 선교부는 7월 24일 교사·학생기도회를 새성전에서 가졌다. 또한 7월 한달동안 성전 뜰에서 선교지역 발표회로 북한권의 발표 전시를 했다.

* ... 새가정부는 19일에 산모건강문제를 가지고 고려병원에 근무하는 고복자선생을 강사로 모시고 특강을, 26일에는 학생신앙간증회를 가졌다.

각 종 통 계

1981. 6. 7(매월 첫 주 기준)

총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 버스편

- 매 주일 저녁에 배후
- 매 주 수요일 배후 9시에 교회앞에서 출발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천·여주방면 완행버스를(20분 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서 하차>하여 광주행 31번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 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30-00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한 101번을 거서서
광주 초월 14번을 신청

구 분		남	여	계					
예	주일 낮	I 부	235	432	667	총세대수 4,135			
		II 부	503	1,060	1,563				
		III 부	466	883	1,349				
		IV 부	269	593	862				
	계	1,473	2,968	4,441					
배	주 일 저 녀	325	739	1,064	신	교인	남	3,778	
	삼 일 저 녀	206	384	590			여	5,513	
주 일 학 교	어린이새신자부	35	36	71			급	총수	계
	영 아 부	180	131	311	세례	남			1,985
	유 치 부	170	179	349		여			3,416
	유 년 부	191	213	404		입교	계	5,401	
	초 등 부	230	207	437	유아		남	514	
	중 등 부	162	199	361			여	418	
	고 등 부	132	176	308		세례	계	932	
	대 학 부	76	64	140	학습		남	300	
	청 년 부	90	99	189			여	414	
	장 새 I 부	42	114	156		교인	계	714	
	장 새 II 부	19	64	83	원입		남	979	
	장 년 부	23	251	274			여	1,265	
	노 년 부	43	115	158		교인	계	2,244	
	산 업 교 육 부	23	114	137					
	선 교 부	21	41	62					
	새 가 정 부	17	21	38					
	합 계		3,458	6,115	9,573				

7. 8월의 행사

- 7월 5일 정기제직회
 6-10일 제10회 농어촌평신도지도자 초청훈련
 15-18일 청년부 하기수양회
 19일 맥추감사주일
 20-23일 대학부 하기수양회
 21-24일 선교부 하기수양회
 27-30일 유년부·초등부·어린이새신자부 성경학교
 28일 정기당회
 8월 2일 정기제직회
 3-6일 중등부 수양회
 7-8일 장년부 수양회
 10-13일 고등부 수양회
 10-13일 성가부 수양회
 17-19일 권사회·여전도회 수양회
 24-25일 노년부 수양회

편집하고 나서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는 본격적인 여름행사로 돌입한다. 왜 수양회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번 수양회 때마다 묻는 문제지만 매번 물어야만 하는 일인 것이다. 목표없는 수양회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래서 수양회를 한다는 뚜렷한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수양회를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위해서 교육위원회의 김종석 장로님이 아

주 실제적인 말씀을 해 주셨다. 수양회를 계획하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이나, 보내는 가정이나 모두가 한번은 청독하고 왜 수양회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싶다. 귀한 시간과 물질과 정성들이 공연히 더운 바람 속으로 날려 보낸 한날들이 되지 않도록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7월, 8월은 한데 묶어 합본호로 내고 9월 교회설립기념일을 맞아 특집으로 증편하여 내려고 한다.

* 월간충현 조직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편집위원 / 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종주

이형수 김점태

월간충현

7,8월호

제9권제7호

통권 제90호

1972년 4월30일 창간

1981년 7월26일 발행

발행인 / 김창인

편집인 / 조현명

주 간 / 윤형철

편집부장 / 이형수

대한예수교총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0-3407·3408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5월 총동원전도를 마치고 6월 첫째 주 저녁예배 후 새신자 환영회로 유년부실에서 모였다〉



〈성경연구원의 전교인 성경공부반의 제1학기 수료식을 지난 6월 21일 저녁예배시간에 가졌다〉



〈5월 총동원 전도의 새신자 보증과 육성을 위해 각 지구담당요원 훈련이 지난 6월 19일에 있었다〉



〈농어촌교역자 초청훈련이 6월 29-7월 3일까지, 평신도초청훈련이 7월 6-10일까지 각각 모였다〉



〈북한선교회 합창단이 지난 6월 28일 저녁예배시간에 연주를 했다〉



〈수도노회 주최 성경퀴즈대회에 유년부·초등부 어린이가 참가하여 단체 우승을 차지-유년부의 임상자〉



상을 얻도록 달음질하라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항방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다.
〈고전 9:24-27〉

실로암
못가에서